

Vol.6 No.07  
2012.06

# 기계기술정책

## KIMM Technology Policy

### 대만 기계산업 동향 분석

-ECFA 효과에 따른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1. 서론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로 EHP\* 806개 상품에 대한 관세 삭감 실시

○ EHP 상품 리스트에는 중국 539개, 대만 267개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관세 삭감 실시 후 3년에 걸쳐 관세 완전 철폐를 합의

\* EHP(Early Harvest Program): 협정 전체가 발효되기 전에 관세 양허가 가능한 일부 제품부터 조기에 무관세화 하는 조치

○ 중국 측의 기계분야 對 대만 EHP 상품은 모두 119개이며, 대만 측의 기계분야 對 중국 EHP 상품은 모두 73개(HS 8단위, 공구 포함)<sup>1)</sup>

<표 1> ECFA에 따른 양국 기계분야 EHP 관세 철폐 일정<sup>2)</sup>

구분	2009년 관세율	품목 수	협정 세율		
			발효 1년(11년)	발효 1년(12년)	발효 1년(13년)
중국	0~5%	1	0%		
	5~15%	116	5%	0%	
	15% 이상	2	10%	5%	0%
대만	0~2.5	14	0%		
	2.5~7.5%	57	2.5%	0	
	7.5% 이상	2	5%	2.5%	0%

□ 기계 분야는 중국 EHP 상품 리스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 폭도 커서 향후 국내 기계산업의 대중 수출에 직접적 타격 우려

○ 중국의 분야별 EHP 상품 비중은 기계(22.1%), 방직(25.2%), 석유화학(16.3%), 자동차 부품(9.3%) 순

○ 중국 시장의 기계 분야 관세 인하 폭은 8.8%로 EHP 중 최고 수준이며, 최근 ECFA 발효 이후 무관세화 · 관세 인하에 따라 수출이 급증

- 기계분야 EHP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출액은 2009년 9.3억 달러에서 2011년 27.1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sup>3)</sup>

\*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또한 22.8%에서 32.5%로 10%p 가까이 증가하며 농수산물과 함께 최대 수혜 품목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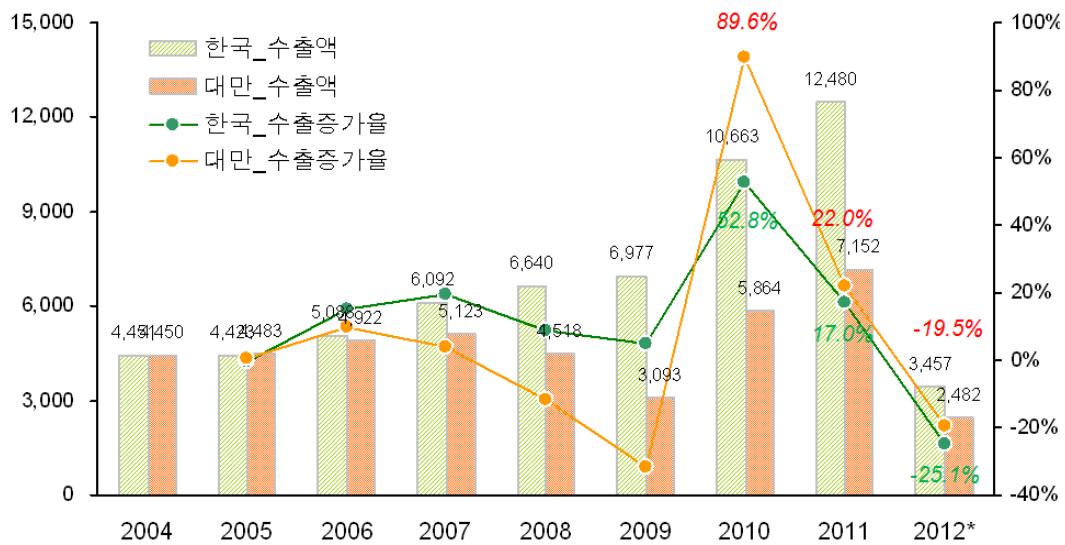
1) 공구 제외 시 중국 측 대 대만 EHP 상품 수는 100개, 대만 측 대 중국 EHP 상품 수는 66개

2) ECFA 협정 관련 대만 경제부 자료를 통해 전략연구실 분석

3) KOTRA Globalwindow <대만 ECFA 상품 조기자유화 성과 기대 못 미쳐>, 2012년 5월 30일 작성에서 인용

- 2011년 대만 기계산업의 對中 수출(홍콩 포함)은 71.5억 달러로 전년대비 22.0%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
-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규모는 2006년 이후 대만에 앞서 있으나, 2011년 ECFA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을 추월당함

○ 2012년 상반기 중국의 경기 둔화 속에서도 대만의 對中 수출(1월~5월)은 24.8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로, 우리나라에 비해 선전



<그림 1> 한국과 대만 기계산업의 對中(홍콩 포함) 수출 추이(백만 달러)⁴)

□ 심화되고 있는 대만과의 수출 경합 또한 국내 기계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

○ 섬유기계(724), 공작기계류(731~737), 밸브(747), 동력전달장치(748), 비전기식 기계류 부품(749) 등에서 점차 수출 경합도가 심화

- 2010년 현재 상기 품목에 대한 양국의 對中 수출액은 대만이 24.4억 불, 우리나라가 19.5억 불로 대만이 우위

<표 3> 중국 시장에서 양국의 주요 경합 품목 수출 추이(백만 달러)⁵)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1,171	1,061	1,250	1,332	1,318	1,241	1,945
대만	1,360	1,510	1,778	2,020	1,836	1,257	2,444

- 상기 품목에서의 우리나라와 대만의 수출 경합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합도의 절대 수준 또한 0.8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

4) 한국기계산업진흥회(KOAMI) 및 대만기계산업협회(TAMI) 자료 인용, 2012년 실적은 한국(1월~4월), 대만(1월~5월)

5) UN Comtrade SITC 자료 인용하여 전략연구실 작성

<표 2>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경합 중인 주요 품목의 경합도 추이<sup>6)</sup>

SITC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
724	섬유기계	0.603	0.753	0.740	0.828	0.776	0.728	0.760	0.157
731	금속절삭공작기계	0.867	0.887	0.810	0.888	0.879	0.861	0.911	0.044
733	금속가공공작기계	0.963	0.977	0.849	0.924	0.980	0.907	0.970	0.007
735	금속공작기계부품	0.863	0.824	0.904	0.768	0.843	0.889	0.824	-0.039
737	기타금속공작기계	0.745	0.686	0.817	0.761	0.681	0.759	0.883	0.138
747	밸브	0.869	0.892	0.902	0.926	0.905	0.897	0.872	0.003
748	동력전달장치	0.319	0.425	0.349	0.468	0.519	0.660	0.644	0.325
749	비전기식 기계류 부품	0.935	0.994	0.980	0.978	0.969	0.959	0.951	0.016
	기계산업 전체	0.724	0.696	0.722	0.669	0.634	0.570	0.576	-0.148

○ 우리나라 對中 수출 10대 품목인 섬유기계(724), 비전기식 기계류 부품(749), 금속절삭공작기계(731)는 향후 관세 인하 확대에 따라 수출 둔화 우려

- 특히 공작기계류는 관세율이 10%대로 높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수출 경합도도 업종 내 최고 수준

\*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공작기계 수출은 대 대만 열위 상태

- 섬유기계의 경우 세계 5위의 수출 시장 점유율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2006년 이후 대만에 추월

<표 4> 한국과 대만 공작기계 · 섬유기계의 對中(홍콩 포함) 수출 추이(백만 달러)<sup>7)</sup>

제품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작기계	한국	469	433	632	633	646	614	967
	대만	799	901	1,073	1,324	1,226	759	1,660
섬유기계	한국	434	285	243	254	137	116	188
	대만	249	266	300	342	184	168	251

□ 이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연구실에서는 대만 기계산업 동향 분석을 통해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

○ 네덜란드에 이어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국가에 대한 심층 분석의 일환

○ 국내 최초로 대만 기계산업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기계산업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KOTRA 해외시장컨설팅팀과 공동 수행한 대만 기계산업 동향 분석 결과 일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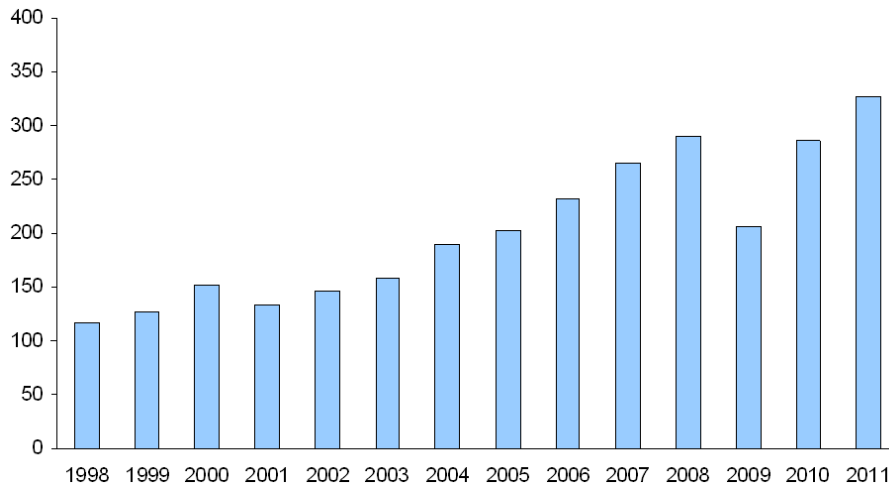
6) UN Comtrade 자료 인용하여 전략연구실 작성

7) UN Comtrade SITC 자료 인용하여 전략연구실 작성

## 2. 대만 기계산업 현황

□ 대만 기계산업 생산액은 2011년 현재 약 327.5억 달러(9,600억 대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1/3 수준이며, 90년대 말 이후 완만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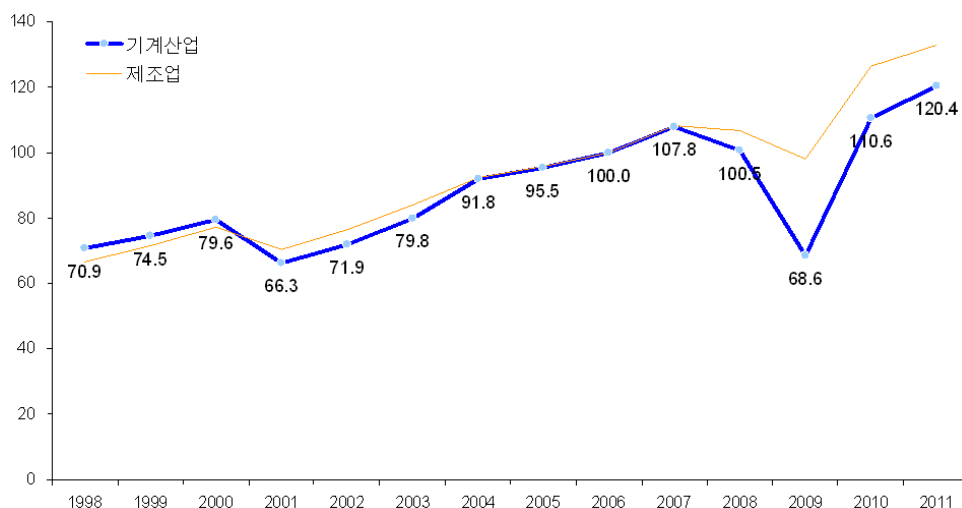
○ 1998년 이후 연평균 8.3% 증가하였으며, 2005년 200억 달러 돌파에 이어 2011년 300억 달러 돌파



<그림 3> 대만 기계산업 생산액 추이(억 달러)<sup>8)</sup>

○ 기계산업 생산지수(2006=100) 또한 2011년 120.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절대 값은 2008년 이후 제조업 평균을 하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계산업의 생산지수 낙폭은 최대 수준



<그림 4> 대만 기계산업 생산지수 추이(2006=100)<sup>9)</sup>

8) 대만 기계산업진흥회(TAMI) 자료 인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연구실 재구성

9) 대만 경제부 통계처 산업 생산지수 인용

□ 대만 제조업 내에서의 생산·고용 비중은 소폭 하락 추세에 있으나  
기업체 수(Enterprise)는 재증가 추세

○ (생산) 기계산업의 제조업 내 생산비중은 2008년 5.1%에서 2010년 4.9%로 소폭 감소

- 국내 총생산(GDP)에서의 비중 또한 2008년 2.6%에서 2010년 2.5%로 0.1%p 감소

- 제조업 및 GDP에서의 비중은 2009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평년 수준으로 회복

<표 4> 대만 제조업 및 GDP 에서의 대만 기계산업의 비중<sup>10)</sup>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제조업	5.2%	5.1%	5.1%	4.1%	4.9%
GDP	2.6%	2.6%	2.6%	1.9%	2.5%

○ (고용) 기계산업의 고용은 2010년 22.5만 명 수준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제조업에서의 비중 또한 2006년 이후 2%p 가까이 하락

- 기계산업 고용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1년 소폭 반등

<표 5> 대만 제조업에서의 대만 기계산업 종사자 비중<sup>11)</sup>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종업원 수(명)	275,500	283,800	285,300	229,800	224,700	244,200
비중	9.9%	10.0%	9.9%	8.2%	7.9%	8.3%

○ (기업체 수) 기계산업 기업체 수는 2011년 18,269개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에서의 비중도 소폭 상승

- 최근 4년 간 대만 기계산업 업체수 증가는 제조업 전체의 증가율을 상회

\* '08년~'11년 기계산업 업체수 증가율 : 5.9%, 제조업 업체 수 증가율 : 1.4%

<표 6> 대만 제조업에서의 대만 기계산업 기업체 수 비중<sup>12)</sup>

년도	2004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업체 수	17,415	17,347	17,254	17,413	18,227	18,269
비중	-	-	10.3%	10.5%	10.8%	10.8%

10) 대만통계청의 산업연관표 각 년도(구매자 가격 기준) 자료 인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연구실 재구성

11) ITRI IEK, 대만통계청 자료 인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연구실 재구성

12) ITRI IEK, ITIS 자료 인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연구실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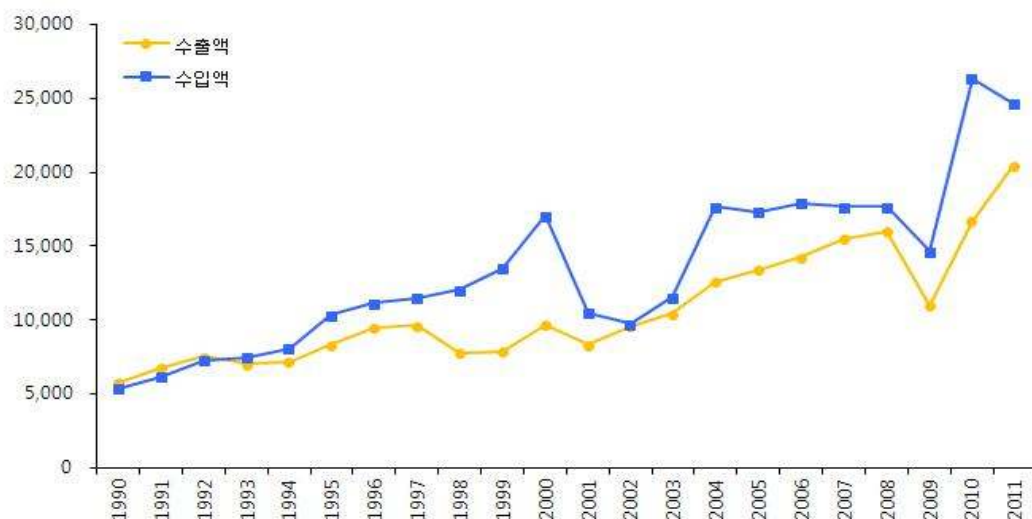
□ 대만 제조업 내에서의 수출입 비중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교역 적자 폭은 최근 다소 확대

- 대만 기계산업의 수출액은 2008년 160.4억 달러에서 2011년 204.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내 수출 비중도 0.3%p 증가한 6.6% 기록
- 수입액은 2008년 176.6억 달러에서 2011년 246.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내 수출 비중도 1.5%p 증가한 8.8% 기록

<표 7> 대만 제조업 수출입에서의 대만 기계산업의 비중(백만 달러)<sup>13)</sup>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총 수출	255,629	203,675	274,601	308,257
기계산업 수출(비중)	16,038(6.3%)	10,987(5.4%)	16,725(6.1%)	20,470(6.6%)
제조업 총 수입	240,448	174,371	251,236	281,438
기계산업 수입(비중)	17,657(7.3%)	14,645(8.4%)	26,325(10.5%)	24,633(8.8%)
기계산업 무역수지	-1,619	-3,658	-9,600	-4,163

- 대만 기계산업은 1990년대 초 이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전방산업 성장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 지속 증가하며 무역 역조로 전환



<그림 5> 대만 기계산업 수출·입 연도별 추이(백만 달러)<sup>14)</sup>

□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태국 등과 높은 교역 비중('11년 기준)

- (수출) 중국·홍콩(33.9%), 미국(14.2%), 일본(5.7%), 태국(3.5%), 독일(3.2%) 순
- (수입) 일본(36.3%), 미국(18.1%), 중국·홍콩(10.3%), 독일(9.1%), 네덜란드(7.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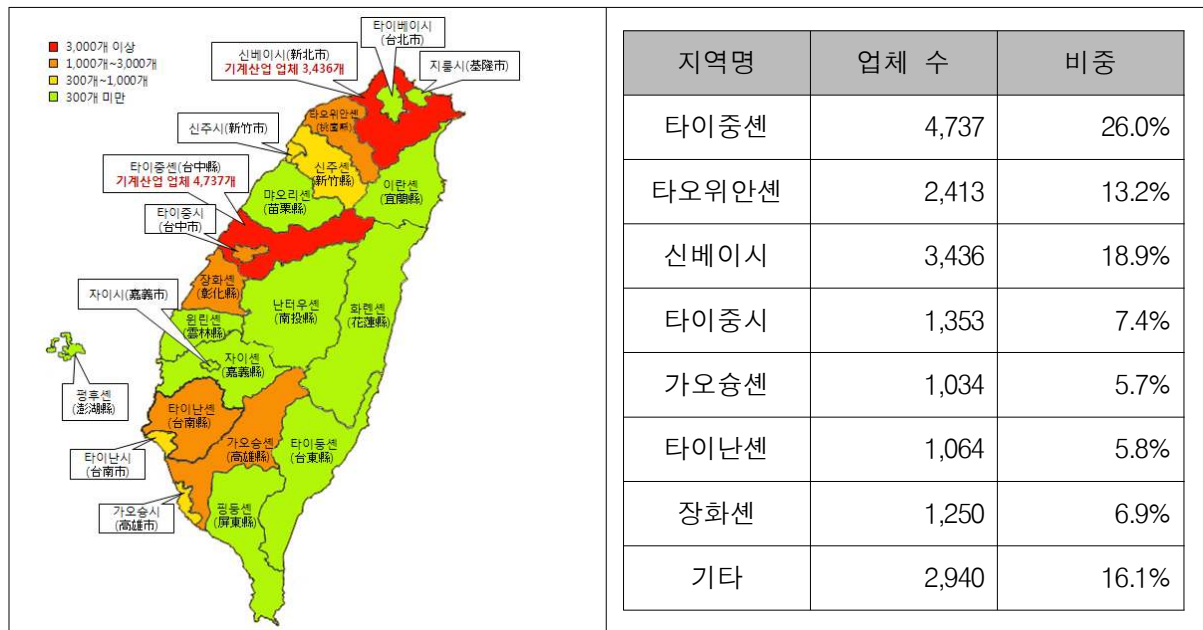
13) ITRI IEK, ITIS 자료 인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연구실 재구성

14) 대만 경제부 통계처 경제통계연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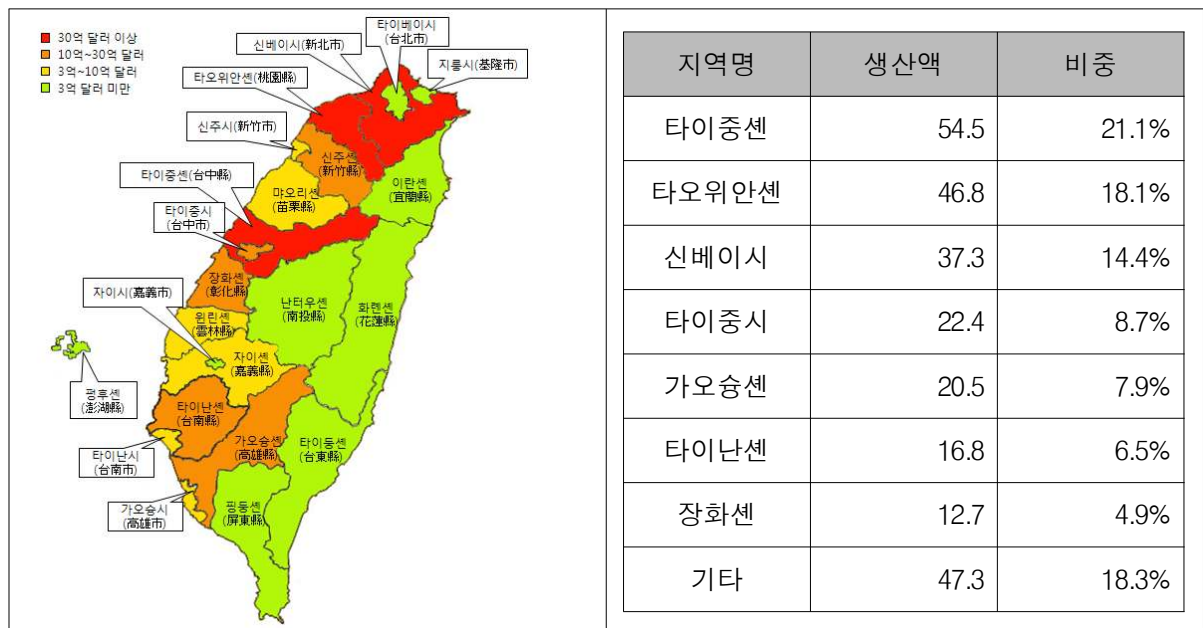
## □ 지역별 동향

○ 대만의 기계산업은 타이중縣 · 타이중市 · 장화縣의 중부, 타오위안縣 · 신베이市の 북부, 가오슝縣 · 타이난縣의 남중국해안 지역에 집중

- 기계산업 집적은 중국 대륙과 가까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 상기 5개縣, 2개市에 대만 기계산업 업체 수 및 매출액의 80% 이상 집중



<그림 6> 2010년 기준 대만 기계산업 지역별 업체 수 분포



<그림 7> 2010년 기준 대만 기계산업 지역별 생산액 분포(억 달러)



- 타이중縣 · 타이중市의 중부 지역에는 공작기계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완제품 및 부품 생산 업체 간의 지리적 이점 및 분업이 체계적으로 진행
- 가오슝縣 · 타이난縣의 남부지역에는 플라스틱 · 고무 가공기계, 섬유기계, 기계류 부품 산업이 집적
- 타오위안縣 · 신베이市 · 신주市의 북부 지역은 반도체 장비 및 관련 부품 업체가 밀집

### 3. 대만 기계산업 특징

#### □ 높은 중소기업 비중

- 대만 기계산업은 납입자본금 8,000만 대만 달러(약 300억 원) 이하 · 상시 고용자 2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97.4% 차지
- 2010년 기준 전체 기계산업 매출 및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54%, 41%

<표 8> 대만 기계산업 중소기업 현황<sup>15)</sup>

	구분	2007	2008	2009	2010
기업체수	전체	15,190	15,122	15,019	15,011
	중소기업	14,853	14,777	14,640	14,613
	비중	97.8%	97.7%	97.5%	97.4%
매출액 (천만 대만 달러)	전체	63,390	63,197	46,127	68,637
	중소기업	35,871	36,295	25,271	37,257
	비중	56.6%	57.4%	54.8%	54.3%
수출액 (천만 대만 달러)	전체	28,148	27,751	19,953	30,503
	중소기업	11,934	12,099	8,097	12,583
	비중	42.2%	43.6%	40.6%	41.3%

- 기계서비스업(산업용 기계설비 수리 · 설치)의 경우 매출 및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음
- 업체 수 비중은 유사하나 매출 및 수출 비중은 제조부문보다 훨씬 높은 수준
- 기계서비스업이 제조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 기계산업 분석에서도 확인<sup>16)</sup>

15) 중소기업중앙회, 연도별 해외중소기업통계에서 인용·재구성

16) 기계기술정책 2011년 9월호 <네덜란드 기계산업을 주목하라(2)> 참고

<표 9> 대만 산업용 기계설비 수리·설치업 중소기업 현황<sup>17)</sup>

	구분	2007	2008	2009	2010
기업체수	전체	2,735	2,956	3,106	3,326
	중소기업	2,713	2,937	3,082	3,302
	비중	99.2%	99.4%	99.2%	99.3%
매출액 (천만 대만 달러)	전체	5,014	5,719	5,315	6,652
	중소기업	3,968	4,536	4,232	5,148
	비중	79.1%	79.3%	79.6%	77.4%
수출액 (천만 대만 달러)	전체	841	1,132	1,102	1,577
	중소기업	565	726	795	1,054
	비중	67.2%	64.2%	72.1%	66.8%

#### □ 높은 수출 의존도

○ 대만 기계산업은 생산액의 약 65%를 수출('11년 기준)하며, 1998년~2011년 사이 평균 수출의존도는 약 63% 기록

- 우리나라는 2008년에 이르러서야 수출 비중이 40%를 상회

<표 10> 우리나라 및 대만 기계산업 생산 및 수출 추이(억 달러)<sup>18)</sup>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생산액	575.8	702.9	826.9	914.6	763.5	595.0	778.4	920.7
	수출액	193	219	253	306	348	285	379	467
	수출비중	33.5%	31.2%	30.6%	33.5%	45.6%	47.9%	48.7%	50.7%
대만	생산액	184.8	202.1	231.4	265.4	290.0	206.1	285.7	327.3
	수출액	120.1	131.3	138.7	154.2	166.3	113.4	172.2	211.1
	수출비중	65.0%	65.0%	59.9%	58.1%	57.3%	55.0%	60.3%	64.5%

○ 특히 대만공작기계산업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45% 대)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심한 편

- 우리나라 공작기계산업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수출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에 비추어봤을 때 대만의 높은 수출 의존도는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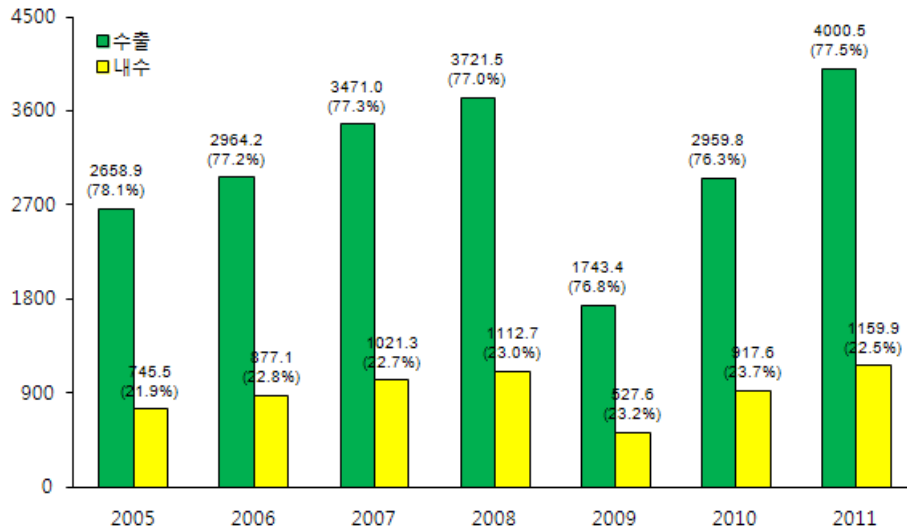
- 대만공작기계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는 자국 내 자동차 산업 발전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이해 가능

- 대만의 자동차·부품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작은 내수 시장 및 자체 기술 능력 부재로 인해 OEM 방식을 오랫동안 유지

17) 중소기업중앙회, 연도별 해외중소기업통계에서 인용·재구성

18) 전략연구실 소장 데이터 및 대만 기계산업진흥회(TAMI) 통계에서 인용·재구성

- 공작기계산업 발전에 자동차 산업이 큰 역할을 함을 고려했을 때, 대만 공작기계산업은 수출을 통한 경쟁 전략을 유지
- 대만의 주요 공작기계 기업은 도요타, 마쓰다, Isuzu, 미쯔비시,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와의 제휴를 통해 성장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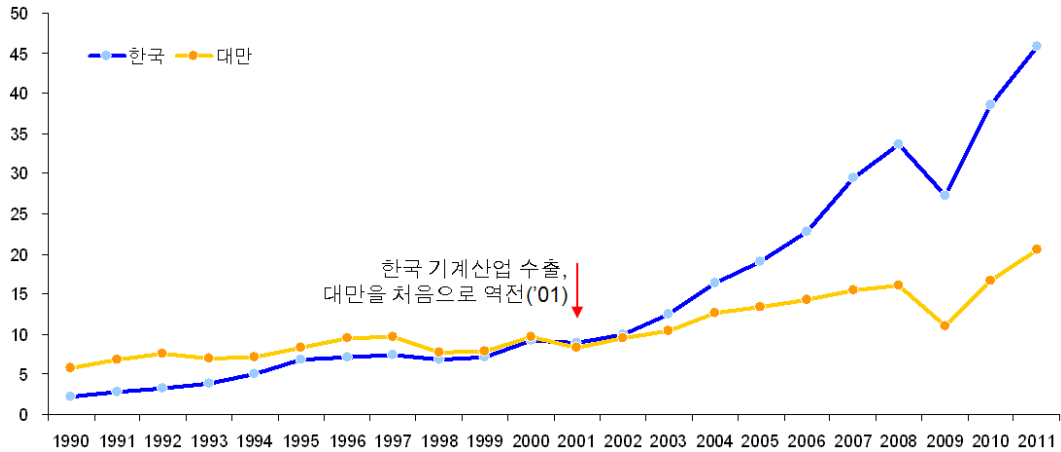


<그림 8> 대만 공작기계 산업의 매출 구조 추이(백만 달러)<sup>19)</sup>

#### □ 가족 중심의 경영 등 비교적 폐쇄적 문화

- 대만 기계산업은 대만 제조업 내에서도 가족 중심의 경영으로 인해 사업·재무 정보 등에 대한 공개가 극히 적은 상태
  - 이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확장, 대규모 자본의 외부 조달 등이 어려운 환경
- 수직·수평 통합을 통한 제품 라인 확대, 효율성 강화 등의 시도보다는 공급 사슬 내 기업 간의 분업 체제를 중요시
- 이로 인해 업체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다른 업체나 협회를 통해 구입한다는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는 대만 기계산업의 발전 속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실제로 대만기계산업 수출은 199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2.5배에 달했으나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 추월

19) 대만기계협회(TAMI), '연도별 일반기계/공작기계 생산·수출·수입 통계'에서 인용·재구성



<그림 9> 한국과 대만 기계산업 수출 추이(십억 달러)<sup>20)</sup>

## □ 산업 내 공작기계산업의 높은 비중

○ 대만 기계산업 내 공작기계산업의 비중은 평균 16%대로, 우리나라(약 6%)에 비해 약 10%p 높은 수준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1%대로 급락하였으나 이후 회복세

<표 11> 대만 공작기계 생산액 및 기계산업 내 비중 추이(백만 달러)<sup>21)</sup>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생산액	3,404.4	3,841.3	4,492.3	4,834.2	2,271.0	3,877.5	5,160.4
기계산업 내 비중	16.8%	16.6%	16.9%	16.7%	11.0%	13.6%	15.8%

○ 대만 공작기계산업은 수출 규모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공작기계 기업 중 11개社를 보유

<표 12> 대만 주요 공작기계 업체 현황

번호	업체명	공작기계 매출(백만 달러)	글로벌 순위 (approx.)
1	Chin Fong(金豐機器)	103(2010)	77위
2	You Ji(油機)	143(2008)	66위
3	Victor Taichung(臺中精機)	182(2010)	54위
4	Tongtai(東臺)	211(2010)	51위
5	Awea(亞歲)	84(2010)	86위
6	Goodway(程泰機械)	61(2010)	96위
7	Falcon(福裕)	104(2011)	76위
8	Fair Friend(友嘉)	635(2010)	20위
9	YCM(永進)	146(2008)	65위
10	She Hong (Hartford)(協鴻)	137(2007)	68위
11	Taiwan Takisawa(臺灣瀧潭)	96(2010)	82위
12	Shieh Yih(協易精機)	58(2010)	9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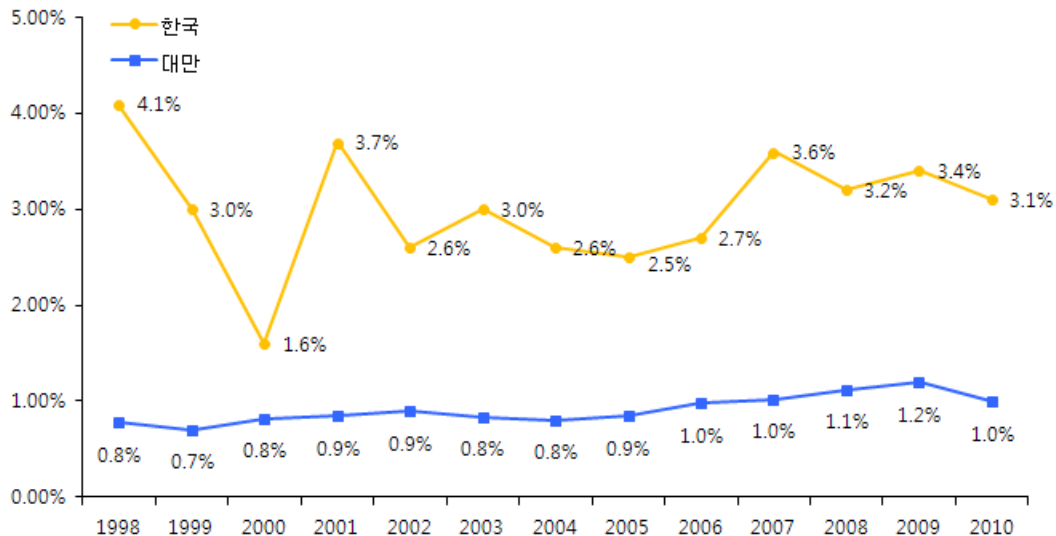
20) 대만은 경제부통계처, 한국은 UN Comtrade SITC, 무역협회 자료 인용

21) 대만기계협회(TAMI), '연도별 일반기계/공작기계 생산·수출·수입 통계'에서 인용·재구성

□ 낮은 R&D 집약도

○ 2010년 대만 기계산업 R&D 투자 규모는 264.3백만 달러이며, R&D 집약도는 약 1%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

- 2010년 우리나라 기계산업 R&D 집약도는 약 3.1%로 대만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 증가 추세



<그림 10> 우리나라 및 대만의 기계산업 R&D 투자 비중 변화 추이(%)<sup>22)</sup>

○ 우리나라와의 생산액 Ratio와 R&D 투자 Ratio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 Ratio에 비해 생산액 Ratio가 더 큰 것으로 확인

- 2010년 양국 간 R&D 투자 Ratio는 0.17, 생산액 Ratio는 0.37로 2배 이상 차이  
 - 이는 우리나라 R&D 투자의 17%만으로 37%의 생산을 달성했다는 의미로, 낮은 R&D 집약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산업 활동이 이루어짐을 시사

<표 13> 우리나라와 대만 기계산업의 연도별 R&D 비용 및 생산액 비교(백만 달러)<sup>23)</sup>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R&D	한국(A)	706.6	827.6	1,101.4	1,740.6	1,425.6	1,254.6	1,588.3
	대만(B)	172.7	194.9	227.1	264.9	290.9	188.1	264.3
	Ratio(B/A)	0.24	0.24	0.21	0.15	0.20	0.15	0.17
생산액	한국(C)	57,582.1	70,296.0	82,693.1	91,458.8	76,354.6	59,502.8	77,837.2
	대만(D)	19,029.0	20,205.6	23,139.9	26,539.8	29,000.3	20,606.1	28,571.4
	Ratio(D/C)	0.33	0.29	0.28	0.29	0.38	0.35	0.37

22) ITRI IEK(대만) 및 KOITA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한국)에서 인용

23) ITRI IEK(대만) 및 KOITA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한국)에서 인용

## 4. 대만 기계산업 주요 업체 동향

### □ 공작기계류

○ 약 2,800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분산된 편

<표 14> 대만 공작기계류 주요 업체 동향

기업명	생산품목	연 매출액 (백만 달러)	수출 비중	비고
金豐機器工業 股份有限公司 (Chin Fong)	프레스류 (CNC 서보, C-Type, Straight Side, Forging, Stamping) 자동화 장비	192.8(2010)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 최대의 프레스 기계 생산 업체</li> <li>자체적으로 120건이 넘는 특허 취득 등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 보유</li> <li>2011년 일본 최대 고속프레스 취급 업체인 YAMADA DOBBY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3C(Computer, Communication, Consumer Electronics) 용 시장 진출 추진</li> <li>중국의 12.5계획' 및 중국 자동차 업계의 프레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11년 장쑤에 공장 설립</li> <li>2012년은 주요 자동차 업체를 타겟으로 하며, 생산액은 약 1억 5,800만 달러에 달할 전망</li> </ul>
東台精機 股份有限公司 (Tongtai)	터닝센터 (수직·수평), 머시닝센터 (수직·수평), 5축 가공기, 자동화 장비, 드릴링 머신	299.5(2011)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 내에서 활발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기업(Honor Seiki, APEC, Quickte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직형 선반, 5축 가공기, 소형 CNC 선반 등의 개발에 성공</li> </ul> </li> <li>최근 Horizontal boring, milling machines and gantry type machining center 등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금속 cutting 영역의 제품라인 강화</li> <li>대만 공작기계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 연구개발 및 서비스센터를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내 Matsuuta Machinery, Ando Electric, Aisin Seiki, Hitachi Seiki 등과 협력 관계 구축</li> </ul> </li> <li>도요타, 도시바의 생산 라인용 공작기계 생산</li> <li>2004년 10월부터 중국 쑤저우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현지 제조 비중을 늘려갈 계획</li> </ul>
福裕 事業股份 (Falcon)	연삭기, 밀링머신, 터닝머신, 선반류	63.3(2010)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 최대의 연삭기 제조업체로, 현재 장화(彰化)와 타이중(台中)에 공장 보유</li> <li>자체브랜드 'CHEVALIER'를 통해 미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수출을 통해 인지도 형성</li> <li>미주지역의 유통망 형성을 위해 1982년 미국에 CHEVALIER MACHINERY INC.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대만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힘</li> <li>1999년 독일에 자회사 설립, 유럽 시장 공략</li> <li>2001년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상해에 자회사 및 공장 설립</li> </ul>

## □ 밸브

<표 15> 대만 밸브 주요 업체 동향 및 특징

기업명	생산품목	연 매출액 (백만 달러)	수출 비중	비고
耐安凡而工業股份有限公司 (NICO VALVES)	밸브류(게이트, 글로브, 체크, 볼밸브)	N/A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사는 대만 타이중(台中)에 있으며, 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마케팅 등의 업무 수행</li> <li>국제인증 ISO 9001, 미국석유협회인증 API-6D, 유럽연맹인증 CE-H MODEL 등을 취득</li> <li>OEM 형태의 협력 방식으로 Hitachi Valves에 Stainless Steel and Malleable Valves 공급</li> <li>상하이에 대형 생산공장을 두고 세계 각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시장 강화를 위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 오픈</li> <li>일본, 영국, 스페인, 이태리 수출</li> </ul>
亞德客工業股份有限公司 (AIRTAC ENTERPRISE)	밸브 (솔레노이드, 유량 제어) 액츄에이터	136.5(201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neumatic Control Valve 관련 아시아 2번째, 전 세계 3번째 규모의 제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시장에서 일본 SMC(시장 점유율 22%)에 이어 13%의 점유율 기록하며 2위 기록</li> </ul> </li> <li>2008년에 이탈리아에 유럽 판매본사를, 2010년에는 싱가포르에 아시아 판매 본사 설립</li> <li>2012년 중국 Ningbo시에 연구개발 센터 설립하며, Ningbo시에 집적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시장 공략 강화</li> <li>최근 자동차관련 제품 실적의 성장으로 중국 자동차업체인 Yulon Motor社와 협력</li> </ul>

## □ 비전기식기계류 부품

<표 16> 대만 비전기식기계류 부품 주요 업체 동향 및 특징

기업명	생산품목	연 매출액 (백만 달러)	수출 비중	비고
元成工業股份有限公司 (YUAN CHERNG)	Oil seal, O-rings, Bushings, Boots, Reed Valves, Inlet pipes	141.2(2012)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 최초의 Oil seal 제조업체</li> <li>다양한 고무제품 및 고무금속결합제품, 금속 제품, 수지가공제품 등 고품질의 제품을 취급하는 OEM 업체</li> <li>ISO9001, ISO/TS16949, ISO14001 품질인증을 획득하면서 해외시장 진출 모색</li> </ul>
全興油封企業股份有限公司 (TSUANG HINE OIL SEAL)	Oil seal	N/A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시트, 핸들, Oil seal, Shock absorber 및 자동차용 각종 부품 등을 생산</li> <li>가족 구성원들 간에 기업 상호소유(Cross-ownership of shares) 형태</li> <li>일본 NOK와 협력 투자하여 ISO9002, QS9000, ISO14001, OHSAS18001, TS16949 등의 인증 취득</li> </ul>

## □ 베어링 등 공작기계류 부품

<표 17> 대만 베어링 및 동력전달장치 주요 업체 동향 및 특징

기업명	생산품목	연 매출액 (백만 달러)	수출 비중	비고
東元精電股份 (Teco Electro Devices)	산업용 모터	860(2011)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만 내 유일한 스테핑 모터 생산업체</li> <li>• 유럽 및 미주지역의 OEM, ODM 생산을 통해 해외 수출 달성</li> <li>• 일본의 선진기술 도입 및 대만 ITRI와의 공동 연구개발 진행</li> </ul>
上銀科技股份 有限公司 (HIWIN Technologies)	볼스크류, LM Guide, 리니어 모터, 리니어 Encoder	302.8(201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해외 진출 시도</li> <li>• 매년 매출액의 5%~10%를 R&amp;D 경비로 사용하는 등 높은 R&amp;D 집약도 기록</li> <li>• 현재 대만 뿐 아니라 독일, 일본, 모스크바, 이스라엘 등지에서도 연구개발원을 설립하여 R&amp;D관련한 많은 투자 수행</li> <li>• 볼스크류 제품의 경우 ISO9001 인증을 통해 비교적 쉽게 독일 및 미국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이후 일본시장으로 진출</li> <li>• 중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 34개 국가에 상표 등록 완료</li> <li>• 최근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지속 증가</li> <li>• 최근 의료기기 분야로 제품 라인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의 DNA 검사 장비, 스웨덴과 영국의 뇌과 수술용 Gamma칼, 독일의 의료 병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적용</li> </ul> </li> </ul>
東培工業股份 有限公司 (TUNGPEI)	베어링	200.8(2010)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어링 관련 대만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조업체로 TPI라는 브랜드 제품으로 월평균 1,600만개의 베어링을 생산</li> <li>• 최근 공작기계 스피들 베어링을 개발하면서 대만 내수시장을 공략</li> <li>• 동사 기술은 공작기계뿐 아니라 자동화산업, 녹색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li> <li>• NTN Japan과 기술합작으로 합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AKS Japan과도 기술합작을 통해 성과 창출</li> <li>• 중국 상하이에 上海東培企業有限公司 공장 설립</li> <li>• 주요고객사: GIANT, FORD, GE, BOSCH, SIEMENS, DELPHI, TECO, HONDA, JOHNSON, BLACK&amp;DECKER, DELTA</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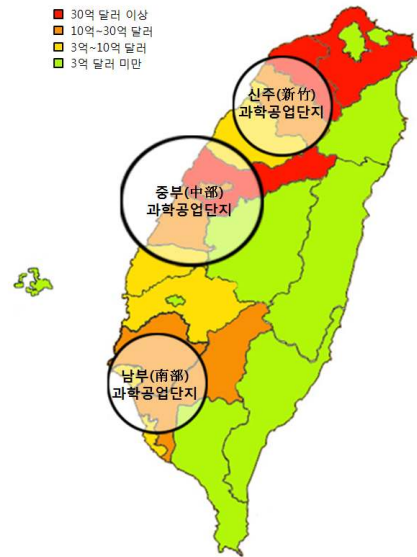
## 5. 대만 정부의 기계산업 육성 정책

- 대만 정부는 이미 1960년부터 기계산업을 주요 기간산업으로 선정, 다양한 육성 정책을 수행
  - 1960년, 기계산업 발전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재봉기·방직기계와 같은 섬유기계를 중심으로 내수 보급 확대를 추진
  - 기계 수출은 미국, 일본보다는 저가격·중저 품질의 자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큰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 위주로 추진
  - 1980년대 대만 정부는 「대만경제건설 10개년 계획(1980~1989)」를 발표하고 2大·2高·2小<sup>24)</sup>의 4대 산업<sup>25)</sup>에 기계산업을 선정하고 적극 육성
    - 1973년 설립된 공업기술연구원(ITRI)은 비슷한 시기 기계공업연구소, 전자공업연구소, 화학공업연구소 등을 설립하며 정부 계획을 지원
    - 동 시기 ITRI는 대만 경제부 공업국의 위탁을 받아 기계산업 부품의 표준을 정립, 대만 기계산업 내 부품 공급 체계 강화에 기여
    - 1982년 정부 차원에서 공업 자동화를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기계산업 성장이 가속화
    - 1980년대 말, 세계 2위의 신발 생산 기계 수출, 세계 3위의 목공기계·플라스틱 가공기계 국가로 자리매김
- 1980년대 말 이후에는 공작기계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 ITRI 기계공업연구소, 산업계, 정부 등의 공동 연구 체계를 통해 공작기계산업의 기술집약적 기종으로의 경쟁력 강화 추진
  -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작기계 고속화 기술 확보에 성공, 평균 판매 단가를 C등급(평균 100만 대만 달러)에서 B등급(평균 300만 대만 달러)로 높이는데 성공
  - 2003년 공작기계 주요 9개 업체, 대만(台灣)대, 성공(成功)대 및 ITRI 간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추진

24) 2大는 생산효과가 크고 시장잠재력이 큰 산업, 2高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2小는 에너지소모가 적고 오염이 적은 산업을 의미

25) 4대 산업은 기계공업, 수송기기, 전기기기, 정보산업을 의미

- 현재 대만 정부는 매년 80~100억 대만 달러(3,000~4,000억 원)의 R&D 예산을 기계산업에 배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 제공
- 연구개발비 보조 및 세금할인 혜택, 저리대금, 인재육성 등의 우대 정책을 시행
- 신주(新竹), 중부대만(中部臺灣), 남부대만(南部臺灣) 과학공업단지 입주 시 조세감면 혜택 제공



<그림 11> 대만 기계산업 발달 지역(매출액 기준) 및 과학공업단지 위치

- 수출 장려 정책
  - 대만 정부는 러시아, 브라질, 터키, 아랍에미리트, 중국, 사우디 등 신흥국 중심의 수출 장려 정책 추진
  - \* 2010년 기준 대만 기계산업의 주요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약 45%

<표 18> 대만 기계산업 신흥국 수출 비중 추이(억 달러)<sup>26)</sup>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세계 수출액	131.3	138.7	154.2	166.3	113.4	172.2
신흥국 수출액	51.5	56.6	63.5	63.5	43.4	77.1
신흥국 수출 비중	39.2%	40.8%	41.2%	38.2%	38.3%	44.8%

\* 신흥국의 범위는 BRICs, E7, TVT에 속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태국 외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포함

- IEA, TMTS, MTduo 등 기계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회 개최 지원

26) UN Comtrade SITC 자료 인용하여 전략연구실 작성

- 2008년 대만 경제부 공업국은 「기계부품세계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고, 4년 간 약 6.3억 대만 달러(약 2,5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
  - 베어링, 볼스크류, LM Guide, Box Guide 등 공작기계 부품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만을 글로벌 공급 기지로 육성할 계획
  - R&D 투자, 인력 양성 등을 포함
- 공업기술연구원(ITRI), 대만기계산업협회(TAMI), 정밀기계 R&D 센터(PMC) 등을 통해 기계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
  - 1973년 설립된 ITRI는 5,600여명의 인력과 6.1억 달러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Mechanical and Systems Lab(MSL)'에서 기계 분야 R&D를 담당
    - 고전력 PM 모터 시스템, 개방형 다축 정밀 컨트롤러, 로타리 모듈, 구동 모듈, WEDM\* 컨트롤러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대만 공작기계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
      - \* Wire-cut Electro Discharge Machining
    - 현재 정밀 생산(공작기계), 그린 에너지(지능형 전기자동차), 지능형 자동화 기술, 친환경 전자소자 생산 및 검사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 최근에는 액압성형(Hydroforming)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금속재료\*의 성형 기술 개발에 주력
      - \* 고강도 철강,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티타늄 등
  - 1945년 설립된 대만기계산업협회(TAMI)는 2,60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
    - 국내외 기계 전시회 개최,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담당
    - 기계관련 각종 기술교류 및 포럼, 세미나 개최를 통해 회원사에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PMC는 대만 정부와 TAMI와의 공동 투자를 통해 설립(1993년)되었으며 공작기계산업의 R&D 및 실증(Demonstration) 업무를 담당
    - R&D 및 실증과 연계한 대만 공작기계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6. 결론 및 시사점

- 본고에서는 직접적 경쟁국 분석의 일환으로서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경합도가 높은 대만 기계산업을 심층 분석
  - 대만 기계산업은 중국과의 ECFA 체결 이후 對中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섬유기계, 공작기계, 밸브, 동력전달장치 등에서 우리나라와 경합 중
    - ECFA 체결 이후 2012년 현재까지 대만 기계산업은 수출 증가율에서 우리나라를 추월
    - 상기 제품군에서 대만 기계산업은 우리나라에 비해 우위를 달성
  - 2012년 이후 추가 관세 인하, 일반무역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에서의 대만의 영향력 확대 예상
- 대만 기계산업은 생산액 기준 우리나라의 약 1/3 수준(약 327.5억 달러)이며, 높은 수출 의존도, 공작기계산업의 높은 비중, 가족 중심의 경영이 특징
  - 제조업 내 생산·고용·업체 수 비중은 각각 4.9%·7.9%·10.8%('10년)
  - 생산액의 약 65%를 수출하고 있으며, 총 수출 규모(205억 달러, '11년)는 우리나라의 45% 수준
    - 제조업 내 생산비중(4.9%)에 비해 수출 비중(6.6%)이 높은 편
    - 공작기계산업의 경우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등 절대적인 수출 지향 구조
  - 대만 기계산업 내 공작기계산업의 비중은 15% 전후로, 세계 100대 공작기계 기업 중 11개사를 보유
  - 한편 가족 중심의 경영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 R&D 투자, 대규모 자본 조달을 통한 빠른 성장 도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이에 반해 공작기계산업은 자국 내 자동차 산업 발전 미흡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 업계와의 협력, 경쟁업체를 포함한 공동 R&D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대만 정부에서도 기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
  -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먼저 기계산업 발전 및 국산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1980년대 초 기계산업을 4대 기간산업으로 선정
  - 신주, 중부대만, 남부대만 과학공업단지 내 기계 기업 입주를 유치,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계산업 클러스터화 추진
  - 2008년에는 「기계부품세계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고, 공작기계 핵심 부품 개발에 4년 간 약 6.3억 대만 달러(약 2,500억 원)를 투자
  - ITRI, PMC, TAMI 등의 기관은 대만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원천기술 개발, 실증 테스트 및 해외 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
- 관세 인하 효과가 더욱 커지기 전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대중 수출 규모에서 대만을 멀찌감치 따돌렸으나 이는 내연기관(713), 건설기계(723) 등 대만과의 비경합 품목의 선전 때문
  - 섬유기계, 공작기계류, 금형 등 경합도가 높은 품목에서는 열세이며, 관세 인하 효과가 더욱 커질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
  - 중국과 대만은 2년 내에 ECFA 후속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한·중 FTA 협상 추진 등에 따라 예상 외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상존<sup>27)</sup>  
\* 대만은 기계 분야 전 품목의 무관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장기적으로 중화권 뿐 아니라 EU,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대만의 분업 체제(차이완 기업)와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
- 중국 현지화 전략 강화와 함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제품·서비스 통합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선 유지 확보 노력이 필요
  - 기계의 경우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통해 고객 신뢰 확보 및 관계 강화가 가능
  - 긴 수명 주기 상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최소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 극복 가능

27) KOTRA Globalwindow <대만, 한·중 FTA 협상 개시에 ECFA 효과 상쇄될까 노심초사>, 2012년 5월 7일 작성에서 인용

○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시장 진출 초기 추진한 제품 현지화 및 서비스 차별화 노력도 좋은 벤치마킹 대상

- 두산인프라코어는 신규 대리상과의 독점 판매망을 구축하고, 이를 제품 유지보수 및 운전·정비 방법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한 대리상에게 제품 구매 가격 인하, 정비 교육 무료 제공 등의 인센티브 부여

〈표 19〉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사업부문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현지화 전략<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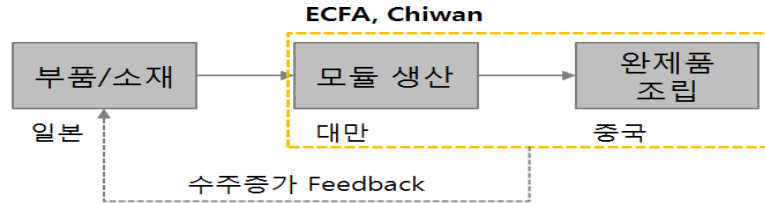
중국 시장의 특징 및 Risk	두산인프라코어의 대응
험한 지형으로 인한 성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이나 유럽 등에서 채택한 표준보다 출력이 높은 엔진 선택</li> <li>• Lift Force에 대한 성능 개선 작업</li> <li>•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품의 재질을 특수강으로 강화</li> </ul>
무더운 날씨에서의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부품 고장 확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대 지역에 채택되는 냉각기 및 관련 부품을 탑재</li> <li>• 엔진의 열기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엔진커버 설계</li> </ul>
고원 지역 작업에 따른 엔진 출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를 강제로 압축시키고 이를 다시 냉각시켜 공기의 밀도를 높여주는 터보 인터쿨러 장착을 통해 성능 개선</li> </ul>
동북 3성 지역의 한파로 인한 기계 유압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액 주입 설계를 통한 현지화</li> </ul>
공기 단축을 위한 24시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 기업의 현지 법인 생산 제품은 4~6Hour/Day 작업 기준으로 생산</li> <li>• 험한 지형 및 초과 가동에 견딜 수 있는 부품 내구성 강화</li> </ul>

□ 대만과의 분업 구조 강화 등 대만기업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고려가 필요

- 원자재 공동 구매, 부품 공급, 공동 기술 개발 등 대만 기업과의 협력 체제 또한 필요한 상황
- 일본의 경우 부품·소재 공급을 통한 대만 현지 모듈 생산, 중국 현지 완제품 조립 및 부품·소재 추가 수요 유발의 선순환 체제 구축 노력
  - 대만과 일본은 2011년 9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ECFA 체결 후 일본의 대대만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
    - \* 대만·일본 투자 협의를 통해 화학원료, 기계, 전자 분야의 협력 강화를 기대
  - 일본은 2011년에만 약 250여 건, 20억 달러를 대만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며, 1952년 이후 누적 투자액은 약 180억 달러 수준<sup>29)</sup>

28)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연구실 분석

29) KOTRA Globalwindow <ECFA 활용 중국 공략, 일본은 벌써 시작했다>, 2011년 7월 1일 작성, <대만·일본 투자협약의 체결의 영향과 전망>, 2011년 9월 28일 작성에서 인용



〈그림 12〉 일본의 대만 투자와 ECFA에 따른 일본의 수혜 전망(예시)

- 일본 기업 및 국내 타 산업의 대만 투자 및 협력 모델을 참고하여 대만기업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적극 추진

〈표 20〉 일본과 한국의 주요 산업별 대 대만 협력 사례<sup>30)</sup>

업체	주요 협력 내용
NTV(일본)과 CtiTV(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6월, 3억 대만 달러를 투자해 합작 프로덕션(黑劍電視節目製作股份有限公司) 설립</li> <li>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와 대만의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 등 중화권 시장진출 계획</li> <li>예능 프로 및 드라마 제작, 라이선스 사업, TV 홈쇼핑까지 사업영역 확대할 계획</li> </ul>
KODANSHA(일본)과 Cite Media(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2월, 대만-일본 유력 출판사 간의 중국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제휴 체결</li> <li>6개월 이내에 대만 합자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공동으로 전자출판물을 제작하여 대만을 비롯한 중국 및 홍콩 시장에 진출할 예정</li> </ul>
동부메탈(한국)과 China Steel(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hina Steel, '10년 말 국내 동부메탈로부터 망간합금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동부메탈 지분 5% 매입 결정</li> </ul>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한국)과 Sintek(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대만 터치패널 업체 Sintek은 차세대 패널 AMOLED 관련 기술제휴 협약 체결</li> </ul>

## □ 한·중 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고려

- 한·중 FTA는 우리나라보다 대만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
-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대만은 주력 수출 품목의 유사성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sup>31)</sup>
  - 중국 또한 한·중 FTA 협상을 대만과의 ECFA 후속 협상에서의 대만 시장 개방 폭 확대 요구 카드로 활용 가능

30) KOTRA Globalwindow <ECFA 활용 중국 공략, 일본은 벌써 시작했다>, 2011년 7월 1일 작성, KOTRA(2011) 'ECFA 우리 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에서 인용·재구성

31) KOTRA Globalwindow <대만, 한·중 FTA 협상 개시에 ECFA 효과 상쇄될까 노심초사>, 2012년 5월 7일 작성에서 인용

- 양국의 의견 조율 및 수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CFA와 같이 품목별 EHP 도입, 점진적 모델 등 다양한 협상 방식 고려
- 대만이 기계 분야에 대한 조기 협상 타결을 강력히 원하는 만큼, 머시닝 센터 등 주요 경합 품목에 대해 대만 보다 앞선 협상 타결 노력이 필요
- 또한 한·중 FTA를 기술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여 기계, 풍력발전, 태양 전지 분야 등 중국 기업들과 협력 모색
- 2010년 중국의 풍력 발전설비 기업 화루이(Sinovel)는 풍력 터빈의 자체 설계·제조의 성공으로 글로벌 기업 GE를 제치고 세계 2위에 등극
- 중국의 태양전지 기업인 선테크파워, JA솔라는 2010년 세계 태양전지 생산량 1,2위의 차지 등, 세계 10위권 기업 안에 4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
- \* 중국 기계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Vol.6 No.1(2012년 1월 호) 11~14페이지 참고

:: Vol.6, No.7 2012

## 기계기술정책

KIMM Technology Policy

| 발행처 | 한국기계연구원 전략기획본부 전략연구실

| 발행일 | 2012. 06

| 기획·편집 | 광기호, 박효주

정성균, 김재윤, 오승훈, 정준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번지

| 전화 | (042) 868 - 7682 (전략연구실)



[붙임]

<표 21> 중국시장에서의 한국-대만 기계산업 품목별 수출액 추이(백만 달러)<sup>32)</sup>

SITC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712	스팀터빈	30	0	60	0	57	0	26	0	31	0	34	4	33	0
713	내연기관	237	11	262	7	335	15	624	16	1,378	14	1,729	10	2,162	14
714	비전기식 엔진 및 모터	6	0	23	0	2	0	7	0	6	1	0	1	21	1
718	기타 원동기	12	8	19	7	24	9	30	9	49	8	62	9	123	17
721	농업용기계 (트랙터제외)	21	5	38	6	37	19	27	12	27	13	27	9	35	12
723	건설광산기계	422	7	425	7	623	6	829	13	1,026	14	1,059	14	2,218	16
724	섬유기계	434	249	285	266	243	300	254	342	137	184	116	168	188	251
725	제지기계	37	72	24	74	28	83	63	132	76	78	16	58	39	106
726	인쇄기계	21	70	20	55	22	78	12	82	9	63	8	41	9	84
727	음식료품기계	11	10	17	8	12	8	12	8	27	11	19	9	23	19
728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	1,302	772	1,369	782	1,437	984	1,780	1,067	1,687	1,126	1,459	796	2,569	1,513
731	금속절삭공작기계	212	413	219	428	365	578	343	684	377	693	383	429	534	954
733	금속가공공작기계	106	251	115	314	151	293	154	387	125	305	111	164	187	293
735	금속공작기계부품	40	105	28	131	38	171	53	220	67	190	63	147	107	357
737	기타금속공작기계	111	30	71	28	78	31	83	33	77	38	57	19	139	56
741	냉동공조기계	271	253	244	306	323	333	326	336	435	265	353	163	444	303
742	액체펌프	38	21	45	26	58	39	80	37	85	42	140	35	159	63
743	기체 및 가스 펌프	348	231	289	248	305	207	317	205	320	172	271	103	392	176
744	운반하역기계	123	69	131	90	159	122	208	153	255	133	200	64	342	183
745	기타비전기식 공작기계	49	65	62	81	78	113	93	115	90	91	82	69	140	150
746	베어링	21	16	25	18	33	35	38	32	41	34	51	28	51	46
747	밸브	72	63	99	67	93	90	134	82	164	84	132	64	176	114
748	동력전달장치	25	42	40	56	63	76	104	108	163	129	177	116	296	231
749	비전기식 기계류 부품(금형)	171	207	204	220	219	239	207	164	208	213	202	150	318	188

32) UN Comtrade 자료 인용하여 전략연구실 작성